

[서평]

LGBTQ* 홈리스 청소년들의 생존기,
『쫓겨난 아이들』

Sassafras Lowrey, ed. *Kicked Out*.
(Ypsilanti: Homofactus Press*, 2010)

이 진 화

(서울대)

퀴어 그 누구도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쫓겨난 아이들』은 현재 홈리스 청소년이거나 과거 홈리스로 생활했던 청소년 시기의 경험을 지닌 미국 LGBTQ들의 생존기이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열일곱 살에 집에서 쫓겨나 우여곡절을 겪으며 생존, 자립하여 지금은 맹렬한 전방위적 퀴어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사사프라스 로우리(Sassafras Lowrey)가 편집했다. 로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비슷한 경험을 거쳐 온/거쳐 가고 있는 다양한 이들의 구술과 기록을 한 권의 증언집으로 소중하게 모아 엮었다.

* LGBTQ는 여성동성애자인 레즈비언(lesbian), 남성동성애자인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트랜스섹슈얼(transgender/transsexual), 퀴어(queer) 혹은 성적체성(sexual identity)이나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을 탐색중인 이들(questioning)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의 머리글자들을 조합한 용어이다. 한국의 LGBTQ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정체성들을 아울러 이반(異般)이나 성소수자라는 말로 가리키고는 한다. 『쫓겨난 아이들』의 필자들은 이성애적 성역할 규범과 가부장적 욕망을 거스르는 다채로운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존재들을 가리키기 위해, 저마다의 맥락에 따라 LGBT(Q)를 쓰기도 하고 퀴어를 쓰기도 한다.

* <http://www.homofactuspress.com/>.

1998년 동성애자 증오범죄(hate crime)의 표적이 되어 사망한 뒤, 미국 내에서 성정체성과 성별정체성 등을 매개로 한 증오범죄 예방법 제정의 촉매가 된 게이, 고(故) 매튜 셰퍼드(Matthew Shepard, 1976-98)의 어머니인 주디 셰퍼드(Judy Shepard)가 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머리말을 썼다. 그녀는 LGBTQ들의 부모와 가족, 교육자, 상담가 그리고 광범위한 LGBTQ 커뮤니티를 향해 호소한다. LGBTQ 홈리스 청소년들을 물심양면 돕자고 외친다. 청소년들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성인 LGBTQ 커뮤니티의 각성을 촉구한다. LGBTQ의 부모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끌어 안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한다 말해 주자는 당부의 말로 짧은 글을 맺는다.

서문에서 로우리는 가족으로부터 쫓겨난 직후 공립도서관을 찾았다가 그 한 칸에 홀로 앉아 다졌던 한 가지 맹세를 회고한다. 그녀¹⁾는 서가를 이 잡듯이 뒤졌음에도 자신의 생존을 위한 조언이 담긴 책이라고는 찾지 못한 채 한없이 막막하던 차였다. 자신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 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살아 남는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다시는 가족을 잃은 어린 쿼어들이 외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14)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까닭만으로 생존의 기반을 박탈당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로우리의 생각은 자기 자신의 사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득 타인에게로까지 넓어졌다. 로우리 자신의 아픔이 그녀로 하여금 타인의 아픔에 열리도록 만든 것이다. 그녀는 “살아남는다면”이라는 가정을 앞에 보태긴 했지만, 그에 뒤따른 맹세의 내용이 그 가정을 차츰 ‘나는 살아남고 말겠다’는 필사적인 각오로 다져주었을 터이다. 로우리를 비롯하여 이 책에 참여한 여러 구술자 및 필자들 덕에, 집과 가족을 잃은 청소년 LGBTQ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도서관을 찾았을 때 금세 찾아 책장을 넘기며 격려 받을 파스한 책이 하나 늘었다.

목차 바로 앞 쪽에는 이 책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을, 혹은 읽을지 말지

1) 책 뒷날개 소개글에서 로우리를 가리키고자 사용된 주격 인칭대명사는 “Ze”이다. 규범적 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따르지 않는 쿼어 여성이라는 의미로 “she”나 “he” 대신 사용되는 대명사이거나, 한국어로 옮기기에 적절한 낱말을 만들어 내기 어려워 원어 표기를 밝혀두는 것으로 대신한다.

고민하고 있을 LGBTQ 당사자 청소년들에게 아마도 이 책의 만듦에 관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한 데 담았을 전언이 실렸다. 전언은 이 책을 꼭 읽어 보기를, 읽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당부한다. “나는 당신들에게 거짓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이 당신들에게 해답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희망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낙관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도 나는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의 진부한 감수성, 해묵은 삶의 양식, 사회 제도에 속속 스며있는 고정된 성역할 규범과 이성애주의가 단박에 변화할 수 없다면, 위기에 처한 LGBTQ 홈리스 청소년들에게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서는 곤란하다. 무책임한 말 밖에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삶을 함께 지탱하고자 하는 도움들이 존재한다면, 거리를 떠돌며 오늘 하루 잠자리를 구하고 당장의 끼니를 위해 쓰레기를 뒤지는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그 삶을 버텨내고 끝내 자립에 성공한 역할 모델들이 이들에게 제시된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님은 상황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도 용감하게 고군분투하는 또 다른 친구들의 생존이 이들에게 알려진다면, 집밖을 떠도는 LGBTQ 홈리스 청소년들은 자기가 완전히 혼자라는 생각을 조금은 덜 할 수 있을 것이다.

퀴어가 홈리스 되기까지

〈전미게이레즈비언대책위원회〉(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가 수집한 여러 집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홈리스 청소년 중 많게는 40%까지가 자신을 LGBT로 정체화 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성정체성 및 성별정체성을 알아보는 설문에 응한 홈리스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커밍아웃을 꺼려 실제 자신이 정체화하고 있는 바와 다르게 답변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홈리스 청소년 중 LGBT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결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높은 LGBT 비율은, 청소년들이 홈리스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들의 성적체성, 성별정체성 그리고 성별표현 등을 매개로 발생하는 가족 문제, 가정 문제라는 이야기와도 같다.

『쫓겨난 아이들』이 펼쳐 놓는 증언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관념이 실상 낭만화 된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절절히 고발한다. 아버지가 “남자 맛을 보여주겠다”며 동성애자인 딸을 강간하고, 성경 말씀과 종교의 가르침에 (잘못) 기대어 자식을 매도하며, 자식을 돕고자 나서는 조력의 손길들을 걷어내려 광기 어린 조치에 나선다. 순간 돌변해 자녀로부터 단 한 마디의 설명도 더 들어보려 하지 않고 마치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양 외면해 버리거나, 자녀가 앉았던 자리를 더럽다는 듯 닦아 낸다. 이런 환경이라면, 제 발로 걸어나가건 등 떠밀려 쫓겨나건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뼈아픈 사실로는 매한가지이다. 부모의 폭력을 동반한 철통같은 감시망을 피해 가까스로 집을 떠났건, 바깥으로 집어 던져진 소지품을 정신없이 주워 허허로이 돌아서야 했건, 실상 쫓겨났다는(kicked out) 점은 다르지 않다.

가장 친밀하리라 기대되는 관계 속에서 이러한 노골적인 거부를 경험한 LGBTQ들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림을 느낀다.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사태를 견뎌낼 방어기제로, 다채로운 감정이 들고 날 통로를 차단해 무감각해져 버린다. 그리고 이런 무감각 상태는 자기 자신에게 가해지는 외부적 학대의 강도를 스스로 가늠하는 일을 어렵게 하여 이들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 쉽다. 부모도 버린 나를 대체 누가 아끼고 사랑해 주겠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극단의 고독에 시달린다.

이 같은 심리적, 감정적 어려움만큼 아니 그 이상 절박한 것이 굶주림, 추위, 건강, 그리고 안전의 문제이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홈리스 LGBTQ들은 불규칙하고 비위생적인 식생활로 배를 앓고 병에 걸리며, 지병을 위해 제 때 복용해야만 하는 약을 거르는 일이 반복되고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고, 굶주림과 추위를 해결하기 위해 반자발적으로 혹은 폭력과 위협에 의해 강제로 “생존을 위한 섹스”(survival sex), 즉, 학대적인 성판매의 장으로 진입한다. 안전장치 없는

섹스로 인해 HIV/AIDS 감염 고위험군에 들게 되며, 거리 생활의 고통을 잊고자 의존한 마약에 중독되어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살아남기 위한 도둑질, 살아남기 위한 성판매, 살아남기 위한 폭력의 반복 속에서 심신이 피폐해져 간다.

거리에서 먹고 자는 상태만을 홈리스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아는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집을 전전하며 몸 누일 소파 한 권을 구하는 상태나(coachsurfing), 청소년/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쉼터며 임시 거처에 머무는 상태 등도 안정된 거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홈리스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러한 처지의 홈리스 LGBTQ 청소년들은 친절을 가장하여 접근하는 연상의 거처 제공자에 의해 가해지는 폭행과 강간의 굴레에 갇히기도 하고, LGBTQ의 정체성을 혐오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교정 대상이 되거나 동료 입소자들에 의한 따돌림 및 린치의 피해자가 된다.

혈연가족 혹은 양육된 가정 등의 원가족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위치 차이는 그로부터 이미 쫓겨난 LGBTQ 청소년들에게 그리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애초에 거의 지원이 없었던 가족 출신이건, 유복한 가족 출신이건 일단 쫓겨난 이상 어떠한 지원이나 상속도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쫓겨난 이후 이들은 위태로운 거주와 불안정한 컨디션으로 학업을 지속하여 고교를 졸업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취직 전에는 교육받을 기회를 지켜야만 소속이 있는 생활을 담보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이 미래의 경력을 대비하는 최소한의 전제로 기능함을 다들 알지만, 환경 상 진도를 쫓아가기는 커녕 출석부터가 수월하지 않아 고생하는 사례가 수도룩하다. 홈리스 상태로 진입함에 따라 물질 기반을 거의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LGBTQ의 홈리스화란 곧 이들이 계급적으로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몰리게 됨을 의미한다. 퀴어 정체성이 사회로 진출할 기반을 닦을 시기의 청소년들을 계급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빈곤이 여성화 되고, 여성이 빈곤화 되듯, 빈곤이 퀴어화 되고, 퀴어가 빈곤화 된다. 퀴어라서 가난하다.

그렇기는 해도 원가족과의 경험이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이었나 하는 점은 홈리스 상태로 갓 진입하게 된 LGBTQ들의 마음가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친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 없이도 워낙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환경에서 자란 이들은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자란 이들에 비해 안락함과 평화에 대한 박탈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 후자의 경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자립이라는 과제를 맞닥뜨리고 정말이지 어쩔 바 몰랐음을 고백하기도 한다. 전자 같으면 일례로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쳐 나오기 위해 오래도록 비상금을 모으며 만 열여덟 살이 되기만을 고대하며 참았던 시간만큼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자건 후자건 가족을 잃었다는 감각만은 어찌 하지 못한다. 이들을 상시 엄습하는 막막함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내가 고른 이름, 직접 만든 가족: 홈리스를 살아 낸 퀴어, 자립과 연대를 배우다

그러나 이들은 상실과 피해의 후유증으로부터 놀라운 탄력성/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준다. 독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위에 언급한 바처럼 고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지면 위에 털어놓은 이들이 결코 고통과 절망만으로 글(혹은 구술, 인터뷰)을 매듭짓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들의 자기서사는 피해자로서의 증언을 넘어, 자신을 옹호는 편견, 혐오, 배제의 메커니즘과 겨루고 버티며 살아가는 전략까지도 독자들에게 나누어준다. 이들은 홈리스를 단속하는 당국과 불쾌해 하는 행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자기비하와 절망의 맨 끄트머리에 이르지 않고 살아남았다. 노천에서 체온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해 최대한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하고, 돈 없이 남들 것을 빼앗지 않으면서 먹을거리를 구하는 요령을 터득했다. 번번이 떠오르고 어김없이 저무는 해와 달 아래서 자신들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듯 보이는 도시의 무정한 패턴을 통과해 생존하고야 만 것이다. 『쫓겨난 아이들』은 이렇듯 화려하지는 않지만 분명 성실하고 소박한 자립 사례를 갈피마다 보여줌으로써 필자들(혹은 구술자들, 인터뷰이들)과 흡사하게 험난한 항로를 가는 이들의 삶 사이로 등대처럼 빛난다.

자립을 위한 이들의 도움닫기에는 같은 처지의 홈리스 친구들, 그리고 혐

오를 보이는 대다수의 타인들 사이에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던 낯모르는 타인들의 호의가 중요한 디딤돌 노릇을 해 주었다. 어울려서 나란히 서로의 체온과 음식을 나누고, 지난 경험과 미래의 계획을 공유했던 거리 생활 동반자들을 향한 고마움이 책장 사이사이 묻어난다.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쉼터 정보를 전해 준 행인에 대한 기억도 기록되었다. 또한 텐진(Tenzin)이라는 필자는 수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변화한 길목에 쓰러져 있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와 주었던 유일한 사람인 한 성판매 여성에 대해 거의 한 문단을 할애해 썼다. 그녀는 텐진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약 중독으로 그런 줄 알고 다가와 필시 보물과도 같이 아꼈을 자신의 크랙(코카인의 한 종류)을 인심 좋게 나눠주려 했다가 이내 사태를 파악한 뒤 기꺼이 구급차를 불러 텐진의 생명을 구했다. 이 밖에도 한테서 잠들어 있는 사이 슬그머니 담요를 덮어주고 가더라는 누군가와 같은 존재들이 필자(구술자, 인터뷰이) 한 명 한 명의 회고에 빼곡하다.

하지만 이들의 자립에 필수불가결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LGBTQ 커뮤니티의 정성스러운 일원들이 이들에게 보여 준 아낌없고 살뜰한 애정 그리고 실질적이고 확고한 지지이다. LGBTQ 홈리스 청소년들이 개인적 사회적 자기 방어 능력이 취약한 소위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이때금씩 자기 욕망만을 채우려고 한 일부 성인 LGBTQ들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어떤 LGBTQ들은 심지어 청소년들의 경험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참여한 LGBTQ들 대부분은 LGBTQ 커뮤니티의 뒷받침 없이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버텨 오기 어려웠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자신들을 제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이 주고, 그렇게 처음 도와주기 시작한 뒤 수년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내내 성장 과정을 지켜봐 주며 변함없이 정신적 후원을 베푸는 커뮤니티의 멘토들을 이들은 새로운 “엄마”(mom), 새로운 “아빠”(dad), 이모 등으로 부른다. 이성혼을 매개로 구성된 혈연가족 모임이 당연시 되는 대대적인 명절과 휴일이면, 이들은 홀로 고독을 곱씹기보다 이 새로운 “부모” 그리고 친자매/친형제보다도 이제 더 끈끈한 다른 쿼어 이웃들과 더불어 혼자가 아님을 감사히 누린다.

한국의 LGBTQ 커뮤니티도 비슷하다. 내가 활동하는 레즈비언 단체는 이제까지, 굵직한 명절이 오면 거의 빠짐없이 회원 모임을 열어 혈연가족/원가족 모임에 갈 수 없거나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이들을 모아 놀았다. 모인 이들의 수가 많은 적든 요리를 하네 게임을 하네 술잔을 기울이네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등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상당수 기혼자인 데다가 아이까지 둔 경우가 많아 친정이며 시댁을 순회하느라 바쁜 내 또래 친구들과 달리 나는 이반 친구들이나 애인과 알차게 시간을 채우며 그런 규모 있는 가족 행사 그리고 북적거리는 데서 썩을 소속감(이라는 또 다른 신화)을 부러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여럿이 그룹으로 어울리며 그 안에서 엄마, 아빠, 형부, 형수, 아들, 딸 등의 이름/역할을 맡아 관계를 맺는 십대 이반들의 “패밀리” 문화도 『쫓겨난 아이들』에서 증언되는 새로운 가족 구성과 비슷한 면을 지니고 있다. 다른 또래 집단, 가족, 학교의 통제를 피해 자기들끼리의 결속감을 강화하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니 말이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보더라도 LGBTQ로서의 자립은 커뮤니티로의 소속과 긴밀히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립과 연대는 쿼어에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쿼어 커뮤니티가 보이는 닮은꼴 또 한 가지는 바로 새로운 이름이다. 『쫓겨난 아이들』의 필자들 중 꽤 많은 수의 인물들이 제도적으로 할당 받은 성별에 따르는 이름을 거부하기 위해 자신이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표현)에 어울린다고 여겨지는 이름을 새로 지어 붙이거나 자신의 캐릭터며 희망이 담긴 낱말로 새로운 호칭을 만들어 냈다. 원래 이름의 머리글자만 취하거나 이름에 대문자를 아예 안 쓰거나 성 따위는 빼고 이름만 사용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활동가라면 활동명, 친목모임 회원이라면 모임 별칭-흔히 닉이라고 부르는-들을 자신이 부여 받은 실명과 별도로 붙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아웃팅의 위험 탓에 실명을 밝히지 않고 기본적으로 별칭만으로 소통하는 나름의 문화이기도 하면서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삶, 내게 이름을 준 이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운 삶을 주체적으로 기획하는 존재로서 하나의 새로운 이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싶은 욕구의 결과이기도

할 터이다.

편집자인 로우리는 자신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177)고 기록하고 있다. 다른 여러 필자들도 새로운 관계망, 자기가 직접 끈을 대어 지켜낸 그 관계망이야말로 자기가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의 이야기에 담긴 함의, 즉, 진짜 가족보다도 새로 꾸린 가족이 더 가족 같다는 역설은 기존의 가족에 부과된 이상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임을 드러내 주는 동시에, 그런 이상이 반드시 혈연가족을 통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가능성 또한 시사한다. 나도 이런 대안적 가능성을 보다 많은 이반들과 나누기 위하여 상담 및 대중 사업의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자립 의지로 직접 일군 지지망을 통해 자기 생계를 이을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새로운 가족을 구성한 이들의 사례는 책을 읽을 LGBTQ 홈리스들에게 『쫓겨난 아이들』 지면 곳곳에서 친절하게 말을 건다. 우리에게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귀담아 들어주고, 우리에게 착취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친절을 베푸는 지지자들이 필요하다고, 나도 이렇게 헤쳐 나왔으니, 그리고 그런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니,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전갈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기 쉬운 LGBTQ 홈리스들에게 귀중한 격려일 터이다. 홈리스 경험이 당신에게 존재의 수많은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을 길러주었으리라는 해안도 반갑다. 버려진 경험, 인간다운 삶으로부터 밀려난 경험, 아무도 진심으로 믿을 수 없었던 경험이 홈리스 경험을 지닌 당사자에게 파괴적인 후유증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성격과 지혜로운 안목, 작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모든 아픈 것에 대한 연민을 확장하게 해 준다는 것, 피해자에게 잠재된 치유의 힘을 되새겨 주는 이야기 같아 감사하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직접 홈리스를 경험한 이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

는 이에게 꺼내 놓을 때의 무게와, 아무리 스스로도 이반일지언정 홈리스의 경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 온 내가 표할 때의 무게란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다. 나의 이런 반가움과 감사함의 표현은 안락한 상태에서나 이상적으로 내놓아질 수 있을 법한 허울 좋은 말로 여겨지기 쉬운 것이다. 그렇게 읽힌다 한들 반박할 수 없고 반박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을 하며 지금 나는 아주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이 한 가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고통 받은 자, 억압받은 자, 피해자들에게는 세상을 남들과 다르게 읽고 더 낮게 변화시킬 잠재력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이다. 우리 모두는 본인이 겪어보지 않은 고통을 경험한 이들로부터 배워야만 한다.

내용의 방향을 따르는 그 만듭새

이 책의 발행인인 제이 세넷(Jay Sennett)과 그윈 헐스윗(Gwyn Hulswit)은 필자(구술자, 인터뷰이) 개개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날 것으로 담아내고자 애초에 정해진 틀 없이 글을 받았다. 그리고 그 중 십터 입소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맞닥뜨렸던 위기를 기록한 글에 대해서는 문법/철자법을 교정하는 일도 최대한 삼갔다. 그리하여 이 청소년들이 쓴 글들은 애초의 형태 거의 그대로 책에 실렸다. 발행인들은 이러한 편집상의 조치를 가리켜, 이야기의 진정성을 그 내용과 관계없이 정확한 문법/철자법 사용에 의거해 판단하는 오만함을 경계하고자 내린 결정이라 설명한다. 반복되는 이주 탓에 학교생활도 불안정하고 학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LGBTQ 홈리스들에게 문법적 세련을 요구하는 건 이들의 말문을 막는 일일 수 있다. 하기에 우리한테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일 의무가 있다면 이들로 하여금 제약 없이 말하게 해야 하고 그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발행인들의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은 목차 앞에 담긴 LGBTQ 홈리스 당사자들을 위한 전언 중 “이 책은 당신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거나 설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공명하며 이 책의 지향과 만듭새를 조화시킨다.

교정의 손길을 거의 거치지 않은 이 몇 편의 글 중 뉴욕시 소재 <실비아의 집>(Sylvia's Place)²⁾이라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이터니티(Etern!ty: 철자 속 느낌표는 오타가 아니다)의 기록이 존재한다. 이 글은 이터니티가 쉼터 책임자인 럭키 마이클스(Lucky Michaels)에게 보낸 서른 다섯 통의 문자메시지들을 연결해 구성한 것이다(134-37). 이터니티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놓고 싶어 자신에게 유일한 매체인 휴대폰으로 그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녀의 맨 첫 문장만 옮겨 와 보자면 이런 식이다. “well my nayme iz etern!ty i guess my l!l st0ree startz wen i wuz a b!t yunger.” 편집자는 이렇게 작성된 글을 우선 그대로 싣고 그것을 적당한 분량마다 끊어 정확한 철자 표기로 이루어진 “번역본”(translation)을 사이사이 덧붙였다. “음, 내 이름은 이터니티입니다. 내 짧은 이야기는 내가 좀 더 어렸을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Well, my name is Eternity. I guess my little story starts when I was a bit younger.) 이는 글이 작성된 본디 형식을 살려 발화자를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층의 독자들 편의까지 배려하는 아주 섬세한 편집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만듦새의 구석구석까지 닿아 있는 고민의 흔적은 『쫓겨난 아이들』의 여러 장점 중에서도 손꼽히는 덕목이다.

나가며

로우리는 『쫓겨난 아이들』을 그저 펴내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쫓겨난 아이들의 선집/쫓겨난 이야기들 모음」(Kicked Out Anthology)³⁾이란 블로그 형 웹사이트를 통해 책이 다룬 LGBTQ 홈리스 청소년 이슈 관련 새 글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책의 필자들과 더불어 순회 낭독회를 열고, 다양한 장소에서 LGBTQ 홈리스 청소년들의 경험과 감정과 필요에 대해 지금도 발언 중이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책

2) <http://www.homelessyouthservices.org/sylviasplace.html>

3) <http://kickedoutanthology.com/>

에 대한 소감을 적어 쪽지를 띄우자, 한국의 LGBTQ 목소리도 듣고 싶다며 「쫓겨난 아이들의 선집/쫓겨난 이야기들 모음」 블로그에 손님 블로거로 글을 기고하지 않겠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올 만큼 움직임이 재고 호기심이 많은 행동과 활동가이다. 나는 이 주제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고민하는 활동가들이나 십대 이반 당사자들과 두루 이야기 나눈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이야기해 두었다.

대개 LGBTQ 청소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는 선생님들로만 이루어져있는 데다가 그나마 몇 되지도 않는 청소년 쉼터들을 전전하며 그곳에서도 따돌림 당하는 십대 이반들을 생각한다. 머물 곳 없고 돈이 부족해 ‘잠만 자는 방’ 하나를 여럿이 간신히 구해 서로 돌아가면서 누워 눈 붙인다는 그/녀들을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그/녀들이 춥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을까.

책을 펴내고 홍보하는 과정 전반을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편집자 로우리의 기세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은 뒤 그냥 덮어 치울 수 없도록 만든다. 이 책에는 무언가 행동하도록 독려하는 힘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아마 『쫓겨난 아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갈 독자라면 마지막 장에 이르러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아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도 이 주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아니다, 할 수 있다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해야 더 옳겠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역사가 십오 년이 넘는 지금도 관련 당사자 단체들은 인력적 한계, 물적 자원의 제한으로 늘 고전 중이다. 자신의 성정체성/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갑자기 갈 곳을 잃은 이들을 맞아들일 변변한 전용 쉼터 하나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단체들은 언제나 후원, 기부, 자원활동이 아쉽다.

미국은 LGBTQ 운동의 전 사회적 주류 이슈가 최근 몇 년간 동성결혼 합법화에 주로 맞춰지면서 안 그래도 관심의 초점이 된 적 없는 청소년 홈리스 문제에 대한 각급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실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현실은 LGBTQ 운동의 전 사회적 주류 이슈와 비주류 이슈 사이에 위계가 발생해서 문제가 아니라 모든 LGBTQ 이슈가 제대로 부상하지 못하

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십대 이반들의 홈리스 문제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모두 절실한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니 만일 『쫓겨난 아이들』을 손에 잡고 책장을 넘기게 된다면, 가까운 데 내 손길 보탬 곳 없나 돌아보기를 권하고 싶다.